현대북한연구, 9권 2호(2006), © 2006 북한대학원대학교, pp.89~131.

북한 '문화어' 화술(話術)의 수사학(修辭學)적 특성 연구

전미영(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

1. 문제제기

분단의 역사는 남북한의 사회문화 영역에 많은 이질성을 초래했으며 그 결과, 언어사용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여전히 남북은 한글을 사용하고 고유의 우리말을 공유하고 있다. 남북이 서로를 한 민족으로 인식하고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그 의식의 근저에는 바로 남북이 공유한 역사, 문화와 함께 동일한 언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질성의 기반으로서의 언어가 분단 과정을 거치면서 각기 다른 체제, 사회에 걸맞게 분화해 오는 과정에 형성된 이질성이 남북한 민족통합과정에서 상호간의 소통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남북한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휘의 의미수준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 발언의 화법의 차이로 인해, 남북의 주민들은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언어적 접촉과정에서 심리적 거부감을 경험하게 된다.

북한 이탈주민들이 남한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중에서 언어문제가 늘 수위로 거론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한글'과 '조선어', '표준어'와 '문화어'로 그 명칭부터 상이한 남북한의 언어는 언어관, 문법체계, 맞춤법, 어휘 등 하위분야에서 다양한 이질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특히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이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 남북주민들 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주로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언어의 문법적 차이에서보다는 화법의 차이에서이다.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오는 북한주민들의 '화술', 즉 말하기 방식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 '언어는 혁명의 무기'라는 혁명적 언어관에 입각하여 체계화된 북한의 언어학은 혁명적 사유를 구성하는 수단으로서, 혁명을 위해 대중을 설득하는 도구로서의 언어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언어정책을 추진해 왔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 '언어를 어떻게 구사하는가'의 문제, 즉 수사학적 측면이 강조되어 왔으며 북한식의 독특한 혁명적 '화술'을 발전시켜 왔다.

지금까지 북한 언어의 수사학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선전·선동술과 동일시되어 학문적 관심 영역에서 소외되어 왔다. 물론 북한의 언어가 선전선동을 위해 복무해 온 것이 사실이며 선전선동 또한 효과적인 설득의 한 방법이기도 하다. 여기서 북한 언어의 수사학적 특성을 규명해 보고자 하는 것은 수사학이라는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개념을 통해 북한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귀납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고대 아테네를 토양으로 하여 탄생한 수사학은 한때 소피스트의 괴변과 동일시되는 등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효과적인 설득을 위한 언어의 기술을 의미하는 수사학은 그 자체만으로는 가치중립적이다. 그것이 좋은 것에 이바지하느냐 나쁜 것에 이바지하느냐는

전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달려 있을 뿐이다. 논증과 표현의 구성, 실연방식 등을 포함하는 '수사학'이란, 말을 통해 상대방을 지배하는 효과적인 설득의 양식이다. 따라서 정치적 지배에 있어서 정치가의 수사학은 통치의 방식으로 행사된다. '말을 통한 지배'가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력을 합리화하고 지배의 방식을 정당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치적 수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북한사회의 수사학에는 언어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이 중첩적으로 교직되어 있다. 물론, 모든 언어가 그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주체의 언어이론에 입각하여 '문화어'라는 북한식의 혁명언어를 구성해 오는 과정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언어의 지배가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정치언어와 일상 언어의 구별이 무의미할 정도로 언어전반이 정치화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 언어의 수사학적 특성 또한 통치수사학의 전형을 띠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연구는 북한 문화어 화술의 수사학적 특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담화의 화술, 웅변화술, 방송 화술을 중심으로 그 수사학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상교양을 위한 담화문, 선전선동을 위한 웅변, 그리고 방송은 북한당국과 주민들을 연결 짓는 언어적 매개체로서 대중설득이 구현되는 직접적 기제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대중설득을 위해 구사되는 북한문화어의 통치수사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그것이 북한사회에서 차지하는 사회문화적 함의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2. 설득의 수사학

1) 통치술로서의 수사학

"말은 강력한 지배자다" 이것은 고르기아스(Gorgias)의 말이다. 사람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으로서의 '말', 말의 강력한 힘은 어디에서 비롯하며 이 강력한 힘의 성격은 무엇인가? 고르기아스는 말의 힘을 '설득'이라고 보았다.[1] 말의 힘이 갖는 설득의 의미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구체화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수사학의 목표는 형식이 깔끔한 연설의 작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는 데 있다.

수사학은 원래 설득시키고 확신시키는 재주로 여겨졌다. 설득수단을 아리스토텔레스는 크게 기술적인 것과 기술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눈다. 기술적이지 않은 설득수단은 연설가의 수중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 수도 있는 수단이요, 연설가가 그냥 적용하기만 하면 되는 수단이다. 법률, 증언, 계약 등이 그렇다. 그에 반하여 기술적인 설득수단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연설자 자신이 강구해야 하는 수단이요, 연설을 매개로 만들어지는 수단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술적인 설득수단으로 수사학적 논증(logos), 감정자극(pathos), 성품연출(ethos)을 꼽는다.[2] 디아스 테레라가 지적하듯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의 목표는 설득에 있지 않고 어떤 논증에라도 적합한 설득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있다. 수사학은 매 사건에 대한 설득의 수단을 찾아내는 방향으로 향

1) 김남두, "말의 힘에 대한 고르기아스의 생각." 『한국수사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5, 가을), 1쪽.

2) 한석환, "아리스토텔레스와 수사적 논증," 『한국수사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5, 가을), 18쪽.

한다. 이 수단들은 통신의 세 가지 요소들의 각각 하나에 따르게 된다. 그것은 웅변가의 에토스, 청중의 파토스, 그리고 담론이다.[3]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 2편에서 심리발현술 이론을 전개하는데, 여기서 변론가의 덕성인 '에토스'와 청중들의 감정의 총체인 '파토스'가 나타난다. 이 부분에서 인간본성의 총체적인 고려와 설득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주관적 설득의 수단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심리적 특성과 감정적 반응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이런 주관적 증명은 특히 정치적 장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치적 장르에서 변론가의 신뢰감은 신중함, 덕성, 호의라는 세 자질을 따르게 되며 이 외에도 변론가는 청중들을 사로잡고 쉽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감정들 하나하나를 잘 파악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면 수사학은 정치학의 목표달성에 이바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4] 따라서 설득의 기법으로서의 수사학은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모든 유형의 지배체제는 강제(coercion)와 설득(persuasion)의 기제에 의해 작동된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힘을 권리로, 복종을 의무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언제까지나 지배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강할 수는 결코 없다"[5]는 루소의 말이 의미하듯이 설득의 요소가 결여된 강제력은 지속적인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강제와 위협이 모든 저항을 제어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만 더 효과적인 전술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지하거나 최소한 침묵하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제의 권력당국자

---

3) Jose Antonio Hernandez Guerrero, *Historia Breve de la Retorica*, 강필운 역, 『수사학의 역사』(서울: 문학과지성사, 2001), p.37.

4) 한석환, "아리스토텔레스와 수사적 논증," 17쪽.

5) J. J. 루소 저, 박옥줄 역, 『사회계약론』(서울: 박영사, 1978), 50쪽.

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집행하든 그것이 폭력과 강제의 공포로 인한 것이기보다는 도덕적으로 옳고 적절한 것이라는 신념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6]

대중적 지지를 지배의 정당성의 근거로 삼고 있는 현대의 정치체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그 유형을 불문하고 모두 이러한 대중설득을 통한 정당화 작업에 주력하게 된다. 어떤 권력도 민중의 저항과 반대를 장기간 억제할 만한 힘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7] 이러한 이유로 권력을 장악한 지도자는 말을 통한 정당화 작업을 시도하며 담론의 정치가 행해진다. 즉 정치담론은 권력이 기본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것을 철저히 숨기면서, 동의나 요청에 의한 합리적 방식으로 권력을 정당화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인 설득을 위한 정치수사학을 활용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설득과 강제의 의미규정에는 미묘한 관계가 설정된다. 즉 설득이라는 심리적 과정 속에 내재된 은폐된 강제성이다. 이는 고르기아스의 주장에서도 제기된 바인데, "말은 영혼을 설득하면서 말해진 것에 따르고 행해진 것에 동의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영혼이 설득 당한다는 것은 말해진 것에 강제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설득에 내재된 강제성의 문제는 설득을 물리적 강제와 동일시하는 발상은 아니며 단지 말의 힘을 실정적 수준에서 파악하려고 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8]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는 정치수사학적 입장에서 볼 때, 상징조작과 선전선동에 의한 설득을 과연 설득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본질

---

6) 전미영, 『김일성의 말, 그 대중설득의 전략』(서울: 책세상, 2001), 17~18쪽 참조.

7) C. E. Merriam, *Political Power* (New York: Collier Books, 1964).

8) 김남두, "말의 힘에 대한 고르기아스의 생각," 15쪽.

적 의문을 끌어낸다. 즉 설득의 과정이 온전한 자기의식의 자발적인 결정인가, 유도되거나 조정된 결정인가의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설득과정에서의 자발적 설득이냐, 유도된 설득이냐를 선명히 구분 짓기는 쉽지 않으며 이는 상당히 정교한 심리학적 분석을 요구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여기서 우리가 정치수사학을 말할 때의 설득의 개념은 이러한 양자를 포괄하는 의미로서의 설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청중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기법으로서의 수사학은 따라서 정치담론의 장에서 가장 필수적인 설득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수사학의 정치적 이용은 그것이 초래하는 파급성으로 인해 과거 철학자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소크라테스는 수사학이 공공의 담론에서 흉한 것을 보기 좋게 만들고, 악을 선으로 화장하며, 죄인을 무죄로 방면하면서 사실을 왜곡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즉 수사학은 아첨만을 일삼으며 대중의 여론을 사로잡는 데만 관심이 있으며 공동체의 참선과 구성원의 행복보다는 레토릭을 실천하는 개인의 이익과 권력에만 관심이 있다고 비난한다.[9] 물론 이러한 비난은 수사학의 윤리성 문제이며 설득력 그 자체에 관한 문제제기는 아니었다. 따라서 레토릭을 실천하는 사람이 사실을 왜곡하면 나쁜 것이지 레토릭 그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것이라는 고르기아스의 주장은 일면 타당하다고 본다.

실제로 대중들의 지지에 지배의 정당성의 기초를 두고 있는 현대의 대중정치 체제에서 권력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정책들을 실현해 나가는 데에서 통치의 행사방식, 정책방향, 의제설

9) 이상철, "<파이드로스>와 <고르기아스>에 나타난 플라톤의 레토릭관," 『한국수사학회 학술발표논문집』(2004, 가을), 64쪽.

정 등을 국민들에게 설득시키고 동의를 얻어내는 작업은 정치리더십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능력인 것이다. 물론 여기서 정치리더의 수사학이란 단지 언변의 기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지도자의 철학, 성품, 윤리성이 내재된 총체적인 '통치의 언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2) 북한의 '문화어'와 혁명의 화술

'문화어'란 북한의 표준어를 칭하는 용어이다. 북한에서 '문화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66년 김일성의 교시를 통해서였다.[10] 당시 김일성은 '혁명의 수도'인 평양을 중심으로 하고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언어를 발전시켜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이때 평양말을 북한의 표준어라고 하면 마치 서울말을 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하여 이미 서울말로 상징되는 표준어라는 용어 대신에 '문화어'라는 명칭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북한 당국은 '문화어운동'이라는 군중운동을 벌여 평양말을 중심으로 하여 북한 언어의 규범들을 정리했다. 즉 남한의 한글규칙들이 '표준어'를 중심으로 정리된 것이라면 현재 쓰이는 북한의 언어규칙들은 '문화어'를 중심으로 정리된 것이다.

표준어는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인공적으로 제정되며, 이런 경우 수도나 문화중심지의 언어가 표준어의 기반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해방 후 남북에 각기 다른 정권이 들어설 당시에도 한반도의 유일한 수도는 서울이었다. 6·25 직후 북한군이

10) 김일성,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옳게 살려나갈 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2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342쪽.

서울에 진주했을 당시, 로동신문은 "우리 조국의 수도 서울", "우리 조국의 민족적 및 국가적 문화의 중심지 서울"[11]의 입성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등 서울을 한반도의 유일한 수도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의도했던 적화통일이 실패로 돌아가고 휴전협정이 체결되는 시점을 기해서야 북한당국은 "우리 조국의 민주수도 평양"[12]을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따라서 1966년 북한당국이 평양말을 중심으로 북한의 표준어, '문화어'를 공식화했다는 것은 북한의 수도를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언어규범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자 남북한 언어의 분화가 공고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13]

북한에서 문화어는 김일성이 항일혁명투쟁시기 민족어를 고수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 속에서 이룩된 혁명전통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문화어는 단지 북한의 수도 '평양의 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에서의 문화어는 '언어는 혁명의 무기'라는 사회주의적 언어관이 구현된 혁명의 언어이자 민족성이 구현된 '사회주의적 민족어'로서의 가치가 부여된다.

> 사회주의적 민족어의 전형인 문화어는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근로인민대중이 자기들이 늘 쓰는 말에 토대하여 목적의식적으로 건설한 언어이며 혁명의 수도 평양을 중심지로 하고 평양 말을 기준으로 발전

11) 『로동신문』, 1950년 7월 9일.

12) 『로동신문』의 지면을 통한 수도평양에 관한 언급은 1954년 말경부터 나타나고 있다. 『로동신문』, 1954년 12월 26일, 1954년 12월 31일 참조.

13) 1964년에 간행된 북한의 『화술통론』은 인민적 화술의 요건의 하나로서 '표준말'의 사용을 언급하고 있다. 즉 이 시기까지만 해도 북한사회가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규정한 표준어에 입각하여 언어를 구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킨 언어이다. 문화어는 혁명적으로 세련되고 문화적으로 다듬어진 우리 민족어의 최고의 형태이다.[14]

먼저 문화어는 언어형성의 사회적 조건으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 언어발전의 합법칙성에 맞게 발전된 언어라고 평가한다. 즉 봉건사회, 자본주의 사회와는 구별되는 '계급적 착취와 민족적 억압에서 벗어난' 새로운 사회형태인 사회주의 사회는 '사회주의적 민족'을 구성하게 되며 사회주의적 민족이 요구하는 새로운 언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 자본주의적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민족들은 자체를 근로적인 사회주의적 민족으로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체의 최대한의 자유로운 발전과 전면적 개화를 이룩하기 위한 매우 발전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야만 온갖 민족적 불평등을 없애고 모든 민족들은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으며 점차 공산주의에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15]

북한사회에서 문화어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라는 조건 아래에서 '언어발전의 합법칙성에 맞게 근로인민대중이 목적의식적으로 건설한' 언어로 평가된다. 따라서 문화어의 기능과 역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사상개조에 적극 이바지하는 데 있으며[16] 공산주의적 언어기

14) 최정후, 『조선어학개론』(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118쪽.
15) 김일성, 『사회과학의 임무에 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443쪽.
16)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편, 『우리 당의 언어정책』(평양: 사회과학출판사,

능에 충실히 복무한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문화어는 새로이 구성되기에 이르는데, 먼저 어휘에 있어서는 김일성의 혁명사상과 혁명 활동을 나타내는 새로운 어휘들을 포함하여 북한이 이룩한 사회경제제도의 성과를 나타내는 어휘들을 비롯하여, 공산주의적 풍모를 나타내는 어휘 등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어휘들을 새로이 만들어내는 한편, 구시대의 사상, 제도, 풍속과 관련된 어휘들은 제외시켰다. 또한 단어와 문장의 발음이 노동자, 농민의 말에 기초하여 새로 다듬어졌고 발음규범에서 인민성이 보장되었으며 말소리는 노동계급 속에 널리 쓰이고 그들 속에서 발전한 표현양식들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문화어는 화술영역에서도 '노동 계급적 선이 뚜렷하고 혁명하는 인민들의 사상 감정을 가장 잘 반영한' 혁명적인 화술로 규범화되었다.

3. '문화어'의 선전·선동 화술 분석

1) 사상교양, 담화의 화술

북한당국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정책이 당원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이다. 즉 '모든 사람들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들어차게 하는 것'이 당 사업에서 첫째가는 업무로서 이는 북한정권 수립 이후 일관된 방침이기도 하다. 북한에서 말하는 '담화'란 사상교양을 위해 이루어지는 대화를 통한 설득의 한

1976), 40쪽.

방법이다.

사상교양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의 담화는 그 대상과 내용에 따라, <당원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혁명의식과 계급의식을 높이도록 교양하는 담화>, <정치사상적으로 뒤떨어진 사람들을 일깨워 선진분자로 끌어올려 세우는 담화>, <과오를 범한 사람에게 자기의 과오를 뉘우치고 혁명적 실천을 통하여 개조하도록 도와주는 담화>, <복잡한 계층을 우리 당 두리에 묶어세우기 위한 담화> 등으로 구별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목적은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혁명위업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때 담화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요구된다.[17]

첫째, 담화자의 올바른 입장과 관점이 담화의 효과성을 높이는 결정적 담보라고 보고 있다. 즉, 북한에서 담화의 목적이란 대상으로 하여금, 혁명적 열의를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것에 일차적 목적이 있는 것인 만큼, 담화자 자신의 혁명정신이 투철하여야만 그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담화자가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되고 혁명적 군중관점이 바로 서야 할 것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일은 당 선전선동일꾼들이 사업에서 "정치적 대"를 철저히 세워야 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 정치적 대란 당의 로선과 방침에 기초한 확고한 주견과 원칙적 입장입니다. (중략) 선전일군들이 사업에서 정치적 대를 세우지 못하면 당사상사업이 기본선에서 탈선될 수 있으며 당 안에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17) 리상벽, 『조선말화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274~284쪽.

잡사상이 끼어들어 혁명과 건설에 엄중한 후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18]

둘째, 대상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담화의 효과성을 높이는 전제조건의 하나로 제기된다. 담화는 예술작품이나 소설을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대상의 준비정도에 따라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따라서 대상의 정치의식과 문화수준을 파악하여 대상에 맞게 말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의 심리적 환경을 파악하는 것이 담화의 화술적 형상에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담화대상의 의식수준에 따라 해설·설복의 형태도 바뀌어져야 한다. 정치의식수준이 높은 대상의 경우에는 의지에 호소하는 형태로, 정치의식수준이 낮고 혁명적 단련이 적은 대상에게는 감정에 호소하는 형태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대상의 수준과 요구에 맞게 글을 써야만 "인민대중의 심금을 세차게 울리며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더욱 힘차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혁명적 언어 구사의 기본지침이기도 하다.[19]

셋째, 담화는 소박하고 통속적인 입말 형태로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통속적인 입말은 다정하고 친근감을 주며, 특히 자기 사상 감정을 꾸밈없이 솔직하게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소박성과 진실성을 안겨준다. 인민대중이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는 말과 글은 대중에게 혁명의 진리를 알려줄 수 없고 대중을 교양하여 혁명과 건설을 밀고 나가기 위한 투쟁에로 조직 동원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20] 그

18) 김정일, "선전일군들은 정치적 대를 세우고 일을 실속 있게 하여야 한다," 『김정일선집』, 제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99쪽.

19) 언어학연구소 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 문풍』(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6), 41쪽.

20)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편,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 언어사상』(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1), 129쪽.

구체적인 방법으로 '문법적으로 다듬거나 수식하지 말 것', '일부러 틀에 맞추어 말을 짜내거나 고상한 말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 것'을 권고한다.[21] 이러한 방법은 대중의 지적 이해의 수준을 고려한 측면에서는 선전선동에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담화에서는 고상한 공산주의적 도덕품성을 보여줘야 한다. 담화자의 입장과 태도가 성실치 못해 보일 때 인격적으로 존경받지 못하게 되며 대상에 대한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담화자의 입장과 태도가 성실했을 때 담화는 짧은 시간에 설득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

또한 언어사용에서 담화자가 견지해야 할 태도 중 하나가 '공산주의적 언어예절'인데, 이 '공산주의적 언어예절'은 인민대중 간에 공산주의 도덕교양을 강화하여 대중들로 하여금 공산주의적 도덕품성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혁명적 단결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논리적으로 아무리 합리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합리적이 못될 때에는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22]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하고 너그럽고 상냥하게 말할 것, "해라", "하시오" 등 '시킴말'을 쓰지 말고 "합시다" 또는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등 '추킴말' 또는 '물음말'을 쓸 것을 권고하고 있다.[23]

---

21) 리상벽, 『조선말화술』, 280쪽.

22) 김동수, 『조선말례절집』(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7~15쪽.

23) 리상벽, 『조선말화술』, 284쪽.

2) 선동연설, 웅변의 화술

북한사회에서 선전선동은 '사상사업의 주공전선'이라고 칭해지고 있을 정도로 사상사업의 주요한 수단으로 행사되어 왔다. 이때 선전이란 "일정한 사상, 이론, 정책 등을 대중에게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해설해 줌으로써 이론적으로 파악하고, 인식하게 하는 사상사업의 한 형식"[24]이며 '선동'이란 "혁명 사업을 잘 수행하도록 대중에 호소하며 그들의 혁명적 기세를 돋구어주며 당 정책 관철에로 직접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상사업의 한 형태"[25]로 정의되어 있다. 즉 선전이 논리적인 설득작업이라면 선동은 대중의 감성에 호소하는 감정적 설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선전선동사업은 구두 선전선동, 직관물선전, 예술활동, 출판보도활동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중에서 구두 선전선동은 매우 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되며 구두 선전선동의 기원 또한 수령의 항일투쟁시기로 설정되어 있다. 구두 선전선동은 그 형식과 방법에 따라 선동연설, 웅변, 경제선동 등 다양하게 진행되는데 구두 선전선동의 질을 높이는 데서 중요한 것은 대중을 흥분시키고 감동시키는 선전선동화술을 소유하는 것이다.[26]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어휘 문법적 표현수법이 요구된다.

(1) 선동연설, 웅변은 누구나 알아듣게끔 쉬운 말로 표현해야 한다.

그 원칙으로 첫째, 문장의 짜임새가 글말이 되지 말고 늘 하는 말과

---

24) 『조선말대사전』(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2), 1743쪽.

25) 위의 책, 1738쪽.

26) 리상벽, 『조선말화술』, 226쪽.

같은 '입말투', 즉 구어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입말투'의 사용은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문화어 화술의 특징 중 하나로서 일상 언어뿐만 아니라 선동연설에서도 중요한 원칙이 된다. 북한의 언어관에 따르면 구어체 표현이 문어체 표현보다 인민대중에게 친숙하고 그들에게 아주 쉽게 이해되기 때문이라고 한다.[27] 둘째로 어렵고 까다로운 한자말이나 외래어를 쓰지 말고 생활에서 늘 쓰는 고유한 우리말을 써야 하며, 셋째로 필요 없는 수식을 많이 붙여 문장을 길게 만들어 기본 사상을 알 수 없게 하지 말고 문장을 간결하게 짜야 하며, 넷째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기본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을 명확히 가려낼 수 있게 체계가 환해야 한다는 것이다.[28]

(2) 문장에서 설득력과 호소성 높은 표현수법을 써야 한다.

설득력과 호소성은 선동성의 두 측면을 담당하는 통일적인 알맹이로서 이것이 없으면 대중이 수령의 교시와 당 정책의 본질적 요구를 심장으로 체득하지 못하며, 결국 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데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선동성은 말 형식, 즉 화술형상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내용과 화술형상의 통일적 일치에서 찾을 수 있다.[29] 설득력과 호소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① 되풀이수법으로 선동성을 나타낼 것, ② 반문, 질문의 수법으로 설득력과 호소성을 높일 것 등이 강조된다.

빨치산들에게는 사람들의 각오밖에 아무런 통제수단도 없었습니다.

---

27) 언어학연구소 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 문풍』, 380쪽.

28) 리상벽, 『조선말화술』, 228쪽.

29) 위의 책, 232~235쪽.

그들에게는 감옥도 없고 류치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해설과 교양사업이 가지는 의의가 비할 바 없이 컸습니다. 밥 먹을 때도 교양이요, 행군할 때도 교양이요, 전투할 때도 교양이었습니다.[30]

선전원과 선동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남이 알아듣고 깨닫게 하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이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31]

(3) 선동연설, 웅변에서 형상적 수법을 알맞게 써야 한다.

수령의 교시와 당 정책을 대중에게 침투시키는 방법은 경제선동, 선동연설, 웅변과 같이 힘찬 목소리로 선동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선전과 선동을 밀접히 배합한 강연, 강의도 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형상적 수법으로서 성구와 속담, 비유법 등을 적절히 씀으로써 선전선동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언어이론에 따르면 속담이란 그 발생 발전의 계기와 그 구성적 특징으로 하여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적 수단이라고 한다.[32] 즉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선동연설에 있어서 속담, 은유, 비유적 표현은 말을 생동감 있게 하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33] 즉 혁명적 화술로서 선동연설의 언어 행위에서 사상 감정의 축적이 없다면 표현이나 전달의 논리적 과정도 있을 수 없고 사상과 지식, 감정의 축적이

30) 『김일성저작선집』, 제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341쪽.

31) 『김일성저작집』, 제2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269~270쪽.

32) 언어학연구소 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 문풍』, 80쪽.

33) 사회과학연구소 언어학연구소 편, 『조선로동당의 지도 밑에 개화발달한 우리 민족어』(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62), 126쪽.

없이는 상대방을 공감시킬 수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말이란 곧 사상과 감정의 언어적 표현일 뿐이며 언어는 무엇보다 사유 및 그 결과를 물질적 음성적으로 형식화하여 주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이다.[34]

따라서 경제선동 연설이나, 정치선동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속담과 성구들이 빈번히 구사되고 있다.[35]

> 오늘 우리 공업은 만 톤급 대형선박을 만드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
> 옛날부터 좋은 농군에게는 나쁜 땅이 없다고 하는데 붙여보지도 않고 땅타발이나 해서야 되겠습니까?
>
>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했는데 교양사업을 직심 있게 드리대면 락후한 사람들도 다 선진분자로 만듭니다.

또한 선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비유의 수법들도 선동연설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 당위원장과 행정일군과의 관계는 비유해서 말하자면 배에서 키 잡는 사람과 노 젓는 사람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행정일군은 앞에서 노를 젓고 당위원장은 뒤에 앉아서 키를 잡고 좌로 우로 하고 지시하면서 방향을 옳게 잡아주어야 배를 곧바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

34) 『철학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648~649쪽.
35) 리상벽, 『조선말화술』, 236쪽.

고 둘이 다 앞에 나가서 노만 젖다보니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곧바로 가지 못하고 꼬불꼬불 가기 때문에 결국은 더디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36]

3) 방송 화술

북한사회에서 방송은 당의 정책을 선전하며 인민들을 계몽하고 교양함으로써 '사상 선전자적 및 교양자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원칙은 김일성의 다음과 같은 교시에 입각한 것이기도 하다.

> 우리의 출판물, 라지오, 문예작품을 비롯한 모든 교양수단이 당의 사상으로 대중을 교양 개조하는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발동되어야 하며 모든 사업 단위들에서 사람을 교양 개조하는 것을 제1차적인 사업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37]

북한사회에서의 방송이 갖는 '사상 선전자적', '교양자적' 역할은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여 사상혁명을 강화함으로써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한다는 3대 혁명론에 입각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의 방송에서 "한 곡의 음악을 소개하거나 한 건의 소식을 전함에 있어서도 이 숭고한 목적을 떠날 수 없다"는 원칙이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며 방송의 기본 전달수단인 방송 화술의 중요성은 이러한 원칙이 철저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방송 편집물들에서 무엇보다도 수령의 '노작'들을 비롯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내외에 선전하기 위한 노력이 우

36) 『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339쪽.

37)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184쪽.

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주어진다.

> 텔레비죤 방송에서는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령도하고 계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정력적인 활동에 대해 편집물들을 최대의 정중성을 가지고 최상의 수준에서 내보내야 하며 수령님의 위대성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폭넓고 깊이 있게 소개 선전하여야 합니다.[38]

방송 화술의 경우, 방송의 광범위한 파급효과와 영향력으로 인해 '화술 형상'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영역은 '수령의 노작과 교시를 전달할 때', '수령의 영도의 현명성과 덕성을 선전할 때', '당의 혁명전통을 선전할 때' 화술 형상자의 사상적 관점이 얼마나 충분히 반영되어, 수령의 위대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가의 기법들이 중요하게 제기된다.

이러한 원칙은 북한에서 방송의 중요한 기능이 수령의 절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데 기인한다.

> 방송은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과 교시들, 어버이 수령님의 영광 찬란한 혁명역사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해설 선전하는 사업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우고 여기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39]

따라서 방송 화술에서는 특히 '수령에 대한 인민의 끝없는 존경과

---

38) 『김정일선집』, 제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422쪽.
39) 리상벽, 『조선말화술』, 356쪽.

<표 1> 수령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을 나타내기 위한 어휘사용 원칙

어휘사용 원칙	예시문
주격토 <가, 이> 대신 <께서>를 써야 한다	"그들은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들려주신 노래의 구절구절을 마음속으로 외웠다"
여격토 <에게> 대신 <께>를 써야 한다	"영숙이는 아버지원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더니 그이의 품에 와락 안기였다"
존경토 <시>를 붙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 마지막 날에 중요한 결론의 말씀을 하시였다"

출처: 리상벽, 『조선말화술』, 357~358쪽.

흠모의 감정이 철저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수령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을 나타내는 어휘와 표현들이 규범화되어 있다.

물론 수령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기 위한 화술이 방송 화술의 특정한 한 양식으로 활용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북한에서 수령에 대한 특정한 화술양식은 북한 문화어 문법의 규범으로까지 명시되어 있다. 김일성종합대학의 문법 교재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끝없이 존경하고 따르며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있는 우리 인민은 어버이 수령님과 관련되는 모든 표현에서 자기의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똑바로 표현하는 것을 더없는 영예로,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있다.[40]

또한 북한의 방송 화술에서는 수령의 교시를 전달하는 화술에 중요한 의미가 부여된다. 북한에서 김일성의 교시는 북한사회의 정책 지침

40)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편, 『조선문화어 문법규범』(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6), 324쪽.

이자 지도원칙으로서 그 의미는 과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41] 따라서 이러한 교시문에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화술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자면, 수령의 교시에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기법으로 교시 인용문 앞뒤에 긴 끊기를 한다든가, 교시문에서는 이전과 다른 말투, 다른 음색을 사용함으로써 교시문을 강조한다. 또한 수령의 노작 전문을 방송에서 낭독하는 경우, 정중성과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목소리를 조절해야 한다. 이때 그 소리는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를 자유자재로 낼 수 있는 중간소리를 기본으로 한다. 특히 당보의 사설을 방송하는 경우에는 설복적 선동과 동원적 선동이 유기적으로 잘 배합되도록 해야 하며 강한 논리성으로 문제의 본질을 논증해야 한다.[42]

4. 북한 '문화어' 화술의 수사학적 특성

1) 수사학의 전형성 창조

북한의 문화어는 특정한 양식의 수사학적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원칙들은 '수령의 문풍'[43]이라는 북한사회에서 완결된 수사학

41) 북한에서 김일성의 교시는 정책의 지침이자 가장 정통한 이론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모든 문헌은 김일성의 교시문을 근거로 작성되도록 규범화되어 있다. 사전을 포함하여 이론서적조차도 김일성 교시문을 인용구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설로 구성되어 있다.

42) 리상벽, 『조선말화술』, 359~375쪽 참조.

43) 북한에서는 한자어 폐지를 추진해 1949년에 이르러서는 한자어의 사용을 전

적 모델에 근거하고 있다. 북한사회의 표준어인 '문화어'라는 것이 북한사회의 '영원한 지도자' 김일성의 항일혁명 활동기에 그 연원을 두고 김일성의 사회주의 국가건설의 한 과정 속에서 목적의식적으로 만들어졌듯이 그 문화어를 어떻게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의 문제 또한 김일성의 '말하는 방식', 즉 수령의 문풍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북한사회에서는 수령이 창시한 혁명적 문풍으로 언어생활 전반을 개조하는 것이 언어 분야에 나선 가장 중대하고 근본적인 문제로 설정되어 있다.

> 조선 문화어 화술을 완성해 나가는 것은 본질에 있어서 혁명의 수도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민족어화술을 발전시킴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 언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화술 전반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혁명적 문풍으로 통일시켜 나가기 위한 투쟁이다.[44]

그러면 북한사회에서 하나의 수사학적 전형으로 평가되고 있는 수령의 문풍은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또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면적으로 금지했다. 따라서 북한에서 '수령의 문풍'이란 한글로만 언급되고 있으나, 그 의미는 '文風'을 뜻한다. 북한에서는 한자어 폐지를 언어정책의 위대한 성과로 자랑하고 있으나, 한자어를 한글로 표현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많은 한자어들을 한글 음으로 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어휘가 그러한데, 예를 들면 '선군정치', '인덕정치', '이신작칙' 등이 그것이다.

44) 리상벽, 『조선말화술』, 8쪽.

북한당국은 수령의 문풍이 항일혁명투쟁 시기에 그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일혁명투쟁 시기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말을 쓰도록 하는 것은 조선혁명의 무기로서의 조선말을 지켜내고 언어의 사회적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절실한 문제였으며 김일성은 노동자, 농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며 글을 쓰도록 가르치는 실천적 모범을 창조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철저하게 혁명적 군중노선에 기초한 것이기도 했다고 평가한다.[45]

실제로 김일성은 언어사용을 사상 개조의 과정으로 보았으며[46] "언어 사용의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철저하게 인민대중을 사상적으로 동원함으로써 그들의 적극성을 발양"시키는 일을 언어사용의 일차적 목적으로 삼고 있다.

언어 사용에서 수령의 문풍을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먼저, 말을 하고 글을 쓰는 방식과 방법을 수령의 문풍에 기초하여 통일시켜 나가는 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는 중요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즉 북한의 언어이론에 따르면 수령의 문풍을 배우는 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업을 더욱 더 심화하는 것"이며 이는 "모든 당원과 근로자들이 수령을 충성으로 우러러 모시고 수령의 교시를 무조건 집행하는 혁명투사를 양성하는 사업"[47]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인민대중들로 하여금 "김일성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 위업을 빛나게 완수하는 데" 중요

45) 위의 책, 10쪽.

46)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편, 『우리당의 언어정책』, 43쪽.

47) 언어학연구소 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 문풍』, 8쪽.

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48] 즉 "온 사회의 언어생활이 수령의 문풍으로 통일될 때", 이것은 근로자들의 사상 의식 개조에 적극 이바지함으로써 "온 사회를 김일성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며 모든 사람들을 수령에게 충직한 참다운 혁명전사로 키울 수 있다"[49]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사상교양의 상당 부분이 수령의 문풍을 익히는 부분에 치중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수령의 문풍이 갖는 수사학적 완결성이다. 먼저 수령의 문풍은 내용적으로 볼 때, 북한당국의 혁명사상과 사회주의 건설의 요구가 구현되어 있다는 것이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적 언어사상과 혁명적인 문풍에는 언어발전에 대한 우리 당과 인민의 념원과 지향, 민족어 건설에 대한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요구가 가장 전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50]

또한 그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수령의 문풍은 수사학적 전형성을 갖는다고 평가한다. 즉, 북한사회에서의 모든 언어생활은 김일성의 노작들과 교시들에서 사용된 어휘, 문법, 문체, 맞춤법들, 그리고 그가 연설, 담화에서 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언어표현' 등 언어와 언어사용의 모범을 유일한 본보기로 하고 있다. 또한 북한사회에서의 모든 출판물들과 학교, 방송, 예술 부문들에서 쓰이는 언어 또한 김일성 노작의 언어를 유일한 본보기로 삼고 있다.[51]

---

48) 위의 책, 40쪽.

49) 위의 책, 41쪽.

50) 리상벽, 『조선말화술』, 8쪽.

> 수령님의 혁명적 문풍에는 생신하고 참신한 모든 어휘와 표현, 문장과 수법들이 집대성되어 있으며 가장 세련되고 문화적인 그리고 표현력 높은 어휘와 표현, 문장과 수법들이 풍부하고 다양하게 구현되어 있다. 수령님께서는 혁명적 문풍에서 언어의 표현성을 높이고 참신하게 하기 위한 모든 방법과 묘리를 밝혀주시었으며 가장 귀중한 실천적 본보기들을 마련해 주시었다.[52]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통치가들은 그들의 통치의 한 수단으로서 수사학적 기법을 발전시켜 왔으며 또 이에 의존해 왔다. '말은 지배하는 힘'이라는 경구가 의미하듯, 지배를 정당화하고 추종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설득력을 갖춘 말은 모든 통치가들에게는 소망사항이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통치가의 통치수사학은 그것이 주민들의 일상언어의 전형으로 격상됨으로써 지도자와 대중 간의 의식의 일체화를 만들어내는 역할로 전환된다. 즉 통치가의 말하는 입장과 관점, 방법을 그대로 본받아 언어생활을 구현하기를 종용한다는 것은, 얼마나 설득적으로 말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지도자와 대중이 '같은 방식으로 말하기'와 '같은 방식으로 사고하기'라는 일체화의 경지를 기대하는 것이다. 결국 모든 사람을 "수령의 사상과 의지대로 숨 쉬고 행동하는" 철저한 김일성주의자로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수사학적 설득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언어를 매개로 화자와 청자의 의식이 일체화된다는 것은 결국 설득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

51) 위의 책, 9쪽.

52) 박용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 문풍을 따라 배울 데 대한 당의 방침과 원칙적 요구," 『사회과학』, 1호(1980), 48쪽.

2) 설득의 에토스

혁명과 건설의 대중동원을 위해 구사되는 북한의 문화어는 대중을 설득하기 위한 수사적 특성을 발달시켜 왔다. 따라서 북한 문화어의 수사학에 있어서도 설득을 위한 요소들 중 화자의 에토스(ethos)가 중요하게 요구된다. 화자의 에토스는 인물의 신뢰성, 도덕성, 호의적인 태도로서 청중들로 하여금 의견을 형성하거나 판단을 내리는 데 영향을 준다.[53]

북한 문화어 화술에서 화자가 견지해야 할 성품표현(에토스) 중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으로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들 수 있다. 문화어 화술 구사에서 화자의 에토스로 작용하는 당성, 계급성, 인민성은 북한의 혁명수행을 위해 갖추어야 할 공산주의적 인간의 기본 덕목이기도 하다.

북한에서 말하는 '당성'이란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자 "당과 혁명을 보위하며 당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서 당의 유일사상인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자기 활동의 확고한 지침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 우리나라 로동계급의 당성은 무엇보다도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충실하는 데서 표현되어야 한다. (중략) 수령을 철저히 옹호보위하며 그이의 교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며 그이의 높은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당성의 최고 표현이다.[54]

---

53) Gert Ueding, *Klassische Rehtorik*, 박성철 역, 『고전수사학』(서울: 동문선, 1996), 43쪽.

또한 계급성이란 계급적 입장을 견지하는가의 문제인데, 이 계급적 입장은 기본적으로 적아의 구분을 전제로 출발하여 계급의 적에 대한 비타협적인 무자비한 투쟁정신으로 일관되어 있어야 한다. 북한에서는 계급성을 견지하는 것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이루기 위한 기본원칙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또한 "계급적 원수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며 사회를 개조해 나가기 위한 과정"[55]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기본 문제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인민성은 "인민대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의 정신 또는 품성"[56]으로 정의되며 인민의 힘을 믿고 그들의 지혜와 창조력에 의거하는 원칙을 의미한다.[57]

문화어 화술에서는 이러한 세 원칙이 화자의 에토스로 작용하며 이 세 요소는 화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인 동시에 소통되는 담화의 내용과 형식을 규정하는 기본 요소이다. 문화어 화술에서 당성, 계급성, 인민성이 화자의 에토스로 요구되는 것은 북한의 문화어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혁명의 언어'라는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 문화어의 발생은 그 의미가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는 힘 있는 무기'로 성립된 것으로서 이는 "로동계급의 혁명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혁명적으로 다듬어지고 풍부화됨으로써 언어표현에서의 혁명성과 전투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이 발양된 언어"[58]로서의 위상을 부여받는다.

---

54)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225쪽.

55) 위의 책, 174쪽.

56) 『조선말대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2), 1700쪽

57) 리상벽, 『조선말화술』, 334쪽.

58) 위의 책, 329쪽.

문화어 실천과정에서 혁명적인 언어생활기풍을 세워나가는 것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혁명적으로 개조해 나가는 사상설득 과정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언어실천과정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수령과 당의 혁명사상을 대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설득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 우리 당의 모든 출판물들과 방송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 정책을 근로자들 속에 해설 선전하여 온 사회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 이바지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알기 쉬운 말과 글로 위대한 혁명사상과 당 정책의 본질 및 진수를 똑똑히 알고 실천 활동에 철저히 구현할 수 있다.[59]

당성, 계급성, 인민성이 사회주의 체제의 보편적인 공산주의적 인간의 에토스라면 북한 문화어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에토스는 민족성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맞게 인위적으로 형성된 북한의 '문화어'는 '사회주의적 민족어'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다. 이미 사회주의 혁명초기 제기되었던 언어이론으로서의 '국제어 합류설'이 사실상 폐기된 뒤 모든 사회주의 국가가 고유의 민족어를 중심으로 언어정책을 추진해 온 마당에 굳이 '사회주의 민족어'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 민족성을 주장하는 데는 언어사용에서 주체를 확립한다는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김일성이 언어정책을 주도하게 되면

59)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편, 『우리 당의 언어정책』, 48쪽.

서 북한사회에서 언어문제는 민족문제와 밀접히 결부되어 논의되어 왔다.[60] 특히 북한의 문화어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언어학에서 주체를 세워 우리말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사람들이 그것을 쓰는 데서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도록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요구된다.[61]

> 언어학에서도 주체를 세워 우리말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사람들이 그것을 쓰는 데서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온 사회가 공산주의로 되기까지는 사람들이 민족별로 갈라져 살기 마련이며 조선 사람은 조선 땅에서 살게 될 것이므로 조선말을 계속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말을 잘 살리고 발전시켜야 합니다.[62]

주체의 언어이론에 따르면, 언어는 문화의 '민족적 형식'을 특징짓는 중요한 표징으로서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한다.[63]

언어사용에서 민족성의 견지는 그 구체적인 실천으로서는 우리말

---

60) 1964년 언어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김일성의 교시는 1966년 두 번째 교시와 함께 주체언어이론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여기서 김일성은 김두봉을 중심으로 한 초기 언어학자들의 문자개혁론 등을 준열히 비판하면서 민족어 발전을 기본으로 한 언어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일성,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문제," 『김일성저작집』, 제1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14~27쪽 참조.

61) 사회과학출판사 편, 『문화어학습참고서』(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7쪽.

62) 김일성,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살려나갈 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20권, 347쪽.

63) 김정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민족어발전의 방향," 『사회과학』, 3호(1981), 57쪽.

의 사용으로 표현된다. 북한의 주체의 언어이론에 따르면 과거 한자어와 외래어의 사용은 우리말의 주체성 있는 발전에 질곡으로 작용했으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주체적인 의식작용을 방해해 온 요소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고유 말을 기본으로 하여 한자어와 외래어 사용을 타파함으로써 민족어의 보호와 주체성의 확립을 추구하고자 했다.[64]

따라서 북한의 문화어는 민족성이 구현된 '사회주의적 민족어'의 전형으로써 그 의미가 평가된다. 특히 민족어의 사용은 문화어 화술의 기본원칙으로 제시되고 있는 인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통속적인 말, 반복적 강조수법, 은유·비유·속담의 활용법 등을 통해 설득력을 증대시키는 데 일조한다.

> 성구, 속담은 사상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언어수단 가운데서도 인민의 역사와 더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거기에는 민족의 정서와 슬기를 비롯한 우리 인민들의 생활감정이 풍부하게 반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구, 속담을 알맞게 쓴 말과 글은 표현적 효과가 높기 때문에 실감 있고 구수하며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안겨준다.[65]

북한사회의 특성상 문화어 화술의 화자는 소수의 정치가, 또는 선동가에 국한되지 않는다. 공산주의 완전승리 시기까지 계속 혁명을 선언한 혁명체제인 북한사회에서 북한의 전 주민은 혁명가이자 선전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바로 이들은 문화어 화술의 청자인 동시에 화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따라서 당성, 계급성, 인민성, 민족성 등

64) 사회과학출판사 편, 『문화어학습참고서』, 51~86쪽.
65) 리상벽, 『조선말화술』, 16~17쪽.

북한사회의 혁명적 에토스는 주민들 개개인이 갖추어야 할 덕성인 동시에 문화어 수사법이 견지해야 할 기본적 설득 수단이 된다.

3) 설득의 파토스

일반적으로 수사학적 행위에서 화자의 성품과 함께 중요한 설득수단은 청중들로 하여금 어떤 기분이 들도록 만드는 것, 즉 파토스(pathos), 감정유발의 수단이다.[66] 북한 문화어의 화술에 있어서 이러한 감정유발을 위한 기법들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특히 북한의 화술에서 감정유발을 위한 전략들은 선전선동의 한 기술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문화어의 수사학적 특성으로 선전·선동성을 높이기 위한 기법들이 발달되어 있는 점은 북한이 문화어가 북한식 공산주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언어라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북한의 문화어는 그 태생 자체가 이미 혁명과 건설을 위한 도구라는 정치적 목적성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언어이다. 따라서 대중을 사상적으로 설득하고 동원하기 위한 선동의 전략들이 문화어 화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화술의 본질적 요구는 언어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민들의 사상, 감정, 정서를 가장 세련되게 다듬어 형상창조에 복무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화술은 인민들의 사상, 감정, 정서 등을 재현하는 하나의 창조적인 작업으로 평가된다. 문화어 화술은 화자가 갖추어야 할 혁명가, 공산주의자의 감정과 정서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66) Gert Ueding, *Klassische Rehtorik*, pp.43~44.

'정치적 생명'을 안겨준 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 끝없는 흠모의 감정'이다. 이어 혁명적 동지애, 집단주의 감정, 계급의식 등이 강조된다.

> 오늘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사람들의 감정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존경과 흠모의 감정, 그이를 수령으로 모시고 사는 무한한 영예감과 행복감, 혁명적 동지애, 집단주의 감정, 혁명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긍지감과 자부심, 계급적 원수들에 대한 증오감과 같은 혁명적이며 공산주의적인 것으로 일관되어 있다.[67]

그리고 이러한 사상·감정은 언어와 행동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모든 구두 선전활동과 '화술창조 사업'은 이러한 사상·감정을 구현해야 한다. 즉 '사회주의 대 건설장에서 노동계급에게 경제선동을 할 때'나 '천리마기수들의 소행을 이야기할 때', 주인공들의 감정, 정서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혁명적 열정을 북돋아 주는 화술을 창조할 수 없게 된다.

문화어의 선전·선동화술에서는 모든 정력을 감정을 조직하는 '형상활동'에 돌려야 할 것이 강조된다. 대중 앞에서의 구두선전 활동에서의 감정 형상화를 직종별 특성에 따라 <표 2>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67) 리상벽, 『조선말화술』, 143쪽.

<표 2> 직종별 형상창조 주의 비율

직종별	글씨 보는 주의	암송 및 기억하는 주의	내용형상의 주의	대상과 교감하는 주의	표정, 행동에 대한 주의
라지오방송원	20%	-	60%	20%	-
텔레비죤방송원	20%	-	40%	30%	10%
대중강연	20%	20%	30%	20%	10%
무대배우	-	10%	30%	30%	30%
영화 및 텔레비죤배우	-	10%	30%	20%	40%
라지오배우	15%	-	60%	30%	-

출처: 리상벽, 『조선말화술』, 158쪽.

도표에서 보듯이 방송원, 강사들은 80%를 형상에 집중시키며 배우들은 90%를 형상창조에 집중시키는 등 대중적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화술 구현 과정에서 청자의 감정을 유발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한편 감정 정서의 형상화에서 견지해야 할 기본 원칙은 계급적 관점에 철저히 의존되어 있다. 담화의 대상, 주제에서 갖는 계급적 관점에 따라 감정 정서를 적합하게 형상화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인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할 때는 기쁜 목소리로 하고 남조선의 비통한 소식을 전할 때는 자신이 진실로 격분에 못 이기여 원수를 단죄하는 장렬한 감정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어의 감정 형상화의 방식은 각각의 주제성격에 따라 그 표현방식에 있어서 <표 3>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표 3> 감정의 형상기교

	말의 음색, 속도 및 표현 특성	감정 표현
수령에 대한 존경	느린 편이나 시낭송과 혼돈되지 않도록 빠르고 느림을 조절, 맺음토에 약간의 여운을 둔다. 높낮이가 미미하나 소리 빛깔이 높이마루를 대신 한다.	약간 미소를 담고 숭엄한 표정으로 하면 말소리도 밝아진다.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만족과 긍지	맑은 소리가 기본. 자랑하는 대목은 격조를 높이고 문장에 따라서는 속도를 내여 줄기차게 내리 엮을 수도 있다.	만족의 미소로 가득 찬 표정을 지으면서 말하면 감정표현도 어울리게 된다.
계급적 원수들에 대한 적개심, 증오	맑고 탄력이 있는 소리 빛깔이다. 말소리의 높낮이는 비교적 굴곡이 심하고 일반적으로 기준음정이 높다. 한 마디, 한 마디 조리 있게 힘을 주어 따지는 식의 말투로 하는 것이 전형이며 때에 따라 속도를 내요 줄기차게 엮을 수도 있다.	모든 발음을 힘을 주며 증오를 나타낼 때는 입을 크게 벌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를 가는 모양으로 씹듯이 발음 한다
슬픔과 비분의 감정	슬픔을 나타내는 목소리는 어둡고 들뜬 빛깔이 전형이다. 비분을 나타낼 때는 목소리가 굵고 낮으며 웅심 깊다	입술에는 설음이 어려 맥이 풀리고 탄력이 약하다. 끊기와 긴사이가 많고 매 토막마다 첫소리에 힘을 준다. 말소리 흐름이 끊길 듯 말듯 인상을 준다.

출처: 리상벽, 『조선말화술』, 163~166쪽.

말의 속도 또한 청자를 설득하는 데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조선말화술은 군중이 알아듣기 쉬운 속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말화술은 문화어 화술의 기준속도를 <표 4>와 같이 규정했다.

<표 4> 문화어 화술의 기준 속도

종 류	단위시간	글읽기	말하기
전달하는 글, 말	1분	250~260자	260~270자
설명하는 글, 말	1분	240~250자	250~260자
선동하는 글, 말	1분	230~240자	240~250자
예술적산문의 글, 말	1분	220~230자	230~240자
신문독보	1분	240~250자	
운문읽기	1분	150~170자	
보고, 연설	1분	250~260자	

출처: 리상벽, 『조선말화술』, 132쪽.

선동성을 높이기 위한 어휘의 선택, 억양, 높낮이, 속도, 강조의 기법을 비롯하여 몸짓, 표정 등이 요구된다. 북한의 방송 매체 등을 통해 확인되는 북한식 화술의 과장된 발성법, 극적인 높낮이 등 음색의 강조, 남한당국과 미국 등을 지칭할 때의 과격한 어휘선택 등은 대중들의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선동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된 화법인 것이다.

5. 맺음말

북한에서 언어는 '혁명의 무기'이자 '사상개조의 수단'으로 그 기능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언어정책이 수행되어 왔다. 북한에서 언어를 혁명의 무기로 삼는다는 것은 말과 글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근로대중에게 목적의식성을 부여하며 그들의 높은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사회에서 말을 하고 글을 쓸 때, 그 누구도 "언어실천은 반드시 혁명위업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특정한 양식의 수사법이 발달되어 왔다.

특히 북한 당국에 의해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북한의 '문화어'는 북한식 혁명수행을 위한 실천적 무기로서 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수사법을 발전시켜 왔다. 혁명적 수단으로서의 북한의 언어관에서 출발한 문화어 수사법은 공식담론을 선전하고 대중들을 사상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통치수사학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그것은 먼저 북한사회에서는 언어가 '혁명의 무기'라는 말에서 의미하듯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단화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북한 문화어의 수사법이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의 화술을 그 전형으로 삼고 있다는 데 있다.

지도자의 무오류성에 근거하여, 완결성을 갖춘 수사법으로서의 수령의 '문풍'을 모범으로 삼는다는 것은 지도자 절대화 작업을 위한 사회문화적 장치인 동시에 '수령의 생각대로 사고하기'를 통한 설득의 극대화를 의도하는 것이기도 했다. 즉 북한의 통치수사학은 그것이 주민들의 일상 언어의 전형으로 격상됨으로써 지도자와 대중 간의 의식의 일체화를 만들어내는 역할로 전환된다.

북한 문화어 화술에서 요구하고 있는 화자의 혁명가적 에토스와 청자의 감정유발을 위한 파토스적 기법들 또한 당의 방침을 따르고 수령에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개조라는 정치적 목적에 부합되게 적용된 것이었다. 북한의 언어이론은 '언어작풍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의 반영이며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은 그들의 언어를 통해 나타난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당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말하기'는 그

누구에게도 예외성을 둘 수 없는 언어사용의 한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사회를 규범화된 화술로 획일화시키고 요구된 방식으로 말을 하고, 글을 쓰고, 사고하도록 종용되는 북한의 언어실천과정이 실제로 지도자와 대중 간의 일체화, 순응적 정치문화를 만들어내는 데 일조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수사학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북한의 문화어 화술은 두 측면에서 상반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북한 문화어 화술의 설득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법들, 즉 인민대중이 쉽게 이해하기 위한 '인민적'이며 '통속적'인 언어구사 방법들과 호소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반 기법들은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통치수사학적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말은 지배하는 힘'이라는 경구가 의미하듯, 지배를 정당화하고 추종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설득력을 갖춘 말은 통치력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따라서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통치가들이 효과적인 수사학에 관심을 기울여왔던 점이기도 했다. 대중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된 북한 문화어의 수사학적 기법들은 대중에 대한 설득력의 측면에서 볼 때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수사법으로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한 북한 문화어 화술은 철저히 '유도된 설득'으로서의 의식조작이라는 파시즘적 언어수사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문화어 화술의 설득과정은 자발적 설득이라기보다는 유도된 설득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양자를 선명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언어를 통한 '사상개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북한의 수사법은 개개인의 주민들로 하여금 합리적 판단과 자유로운 의식의 작

용을 마비케 함으로써 독재정치의 도구로 전락했다. 특히 문화어 화술이 수령에 충성하는 인간형 창조의 한 수단으로 기능함에 이르러서는 소크라테스가 비판한 바 있듯이 '악을 선으로 화장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개인의 이익과 권력에만 관심이 있는' 가장 부정적인 통치수사학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 접수: 3월 27일 / ■ 채택: 5월 18일

참고문헌

『김일성저작선집』, 제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_____, 제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김일성저작집』, 제1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_____, 제2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김정일선집』, 제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_____, 제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조선말대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2).

『철학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김남두, "말의 힘에 대한 고르기아스의 생각," 『한국수사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5, 가을).

김동수, 『조선말례절집』(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김일성, 『사회과학의 임무에 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 1969).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편, 『조선문화어 문법규범』(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6).

김종영, 『파시즘 언어』(서울: 한국문화사, 2003).

김정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민족어발전의 방향," 『사회과학』, 3호(1981).

김정휘·정순기, 『주체의 언어리론 연구』(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리상벽, 『화술통론』(평양: 조선문학 예술총동맹 출판사, 1964).

_____, 『조선말화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박용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 문풍을 따라 배울 데 대한 당의 방침과 원칙적 요구," 『사회과학』, 1호(1980).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편, 『조선로동당의 지도 밑에 개화발달한 우리 민족어』(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62).

_____,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 언어사상』(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1).

_____, 『우리 당의 언어정책』(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6).

사회과학출판사 편, 『문화어학습참고서』(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양태종, 『화술의 법칙』(서울: 유로, 2005).
언어학연구소 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 문풍』(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6).
이상철, "<파이드로스>와 <고르기아스>에 나타난 플라톤의 레토릭관," 『한국수사학회 학술발표논문집』(2004, 가을).
전미영, 『김일성의 말, 그 대중설득의 전략』(서울: 책세상, 2001).
최정후, 『조선어학개론』(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한석환, "아리스토텔레스와 수사적 논증," 『한국수사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5, 가을).

C. E. Merriam, *Political Power* (New York: Collier Books, 1964).
Jose Antonio Hernandez Guerrero, *Historia Breve de la Retorica*, 강필운 역, 『수사학의 역사』(서울: 문학과지성사, 2001).
Gert Ueding, *Klassische Rehtorik*, 박성철 역, 『고전수사학』(서울: 동문선, 1996).

Abstract

North Korean '*Mun Wha Eo*' and the Rhetoric

Mi-yeong Jeon(Dongguk Univ.)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speech style of North Korea's normative language, "*mun wha eo*," and its rhetorical features. One of the features of North Korean rhetoric is a set standard of speech. The standard of normative rhetoric is Kim Il Sung's particular speech style, *moon poong*, which is regarded as the perfect art of rhetoric in North Korea. Furthermore, *mun wha eo* has a persuasive ethos and pathos. The ethos of *mun wha eo* rhetoric is the spirit of the party, the spirit of the people, and the spirit of class, which are the virtue and temper of the speaker. The pathos of *mun wha eo* rhetoric can be attributed to various skills that elicit a positive response in the audience.

North Korean political leaders used speeches to justify political domination, thereby constructing the basis for social and mental consent that made possible the North Korean dictatorship, called the *u-il* system, or the system of one-man rule.

In North Korea, language is the "arms of revolution" that play a role in revising the people's consciousness, and as such, *mun wha eo* rhetoric was devised to manipulate people's consciousness. *Mun wha eo* rhetoric has certain negative characteristics of fascist rhetoric.

Key Words: North Korea, *Mun Wha Eo*, North Korean Language, Political Rhetoric, Political Persuasion

필자 약력(게재순)

전미영

현재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로서, 고려대학교 불문학과를 졸업(1987)하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 대학원에서 논문 "김일성의 담화 분석을 통해 본 북한체제의 정당화 전략"으로 정치학 박사학위(2000)를 받았다. 저서로는 『김일성의 말, 그 대중설득의 전략』(2001)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북한 지배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사회주의·민족주의를 중심으로"(2001), "통일담론에 나타난 남북한 민족주의 비교연구: 통일이념의 모색"(2003), "북한의 정치담론과 전통문화"(2003). "북한 대남정책 연구의 쟁점"(2005) 등이 있다.